

공동체 소식

대림시기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결국 전에 계셨고(첫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에는 또한 대림환을 만들고 대림초를 켜니다. 대림환은 늘 푸른 상록수 잎으로 엮어 만드는데 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림초는 대림시기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늘려가며 켤 수 있도록 4개로 만듭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전까지 미사전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대영광송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심미사 안내

- 12월 7일(토) 오전 10시

첫영성체 안내

- 12월 15일(일) 교중미사 중

성탄 꽃봉헌 접수

- 15일(일)까지 전례부로 접수해 주십시오.

성탄예술품제 신청안내

-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 **성탄 예술품제**에 참가할 개인/구역/단체는 평협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매일미사 신청 안내(\$60)

- 매일미사 책 1년치 신청받습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12월 8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성직자/수도자 은퇴 기금 모금**

- 12월 25일 Catholic Charities 가톨릭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2	216	153	88
차 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박태주(로마노)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	정예찬(미카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 주	-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이우영(가브리엘)
차 주	김병철(베네딕도),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김희진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서 기다리십니다.

- 12월 22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성탄맞이)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 일지, 새벽 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르코 13,33-35)

제 1 독 서 : 이사야서 2,1-5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화 답 송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11-14ㄱ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3,35ㄴ-43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생명의 말씀

그러니 깨어 있어라!



제가 포이동 본당에서 사목할 때 한 복사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안토니오가 동화책을 읽다가 주인공 어미 토끼가 어린 새끼 토끼들을 남겨둔 채 죽는 대목에서 “아니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는 엄마도 돌아가신단 말인가!” 하고 소리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3일간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드립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는 온갖 교리 지식을 다 동원하여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히 산단다!”라고 설득하였고 그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교의 창시자 싯다르타가 젊은 시절에 생노병사(生老病死)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을 통찰한 지혜가 떠올라 어린이 미사 중에 “우리 안토니오는 천재다! 종교적인 천재야!”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의 재림(parousia)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인간의 기본 처지를 번뇌와 슬픔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상기시켜 줍니다(마태 24,37-39).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을 여실히 밝혀 줍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끔찍한 재난 사고 앞에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소홀히 대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불감증과 국가 기관들의 감독 소홀과 늦장 대응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적 풍요가 안겨주는 소시민적인 안락함과 유물(唯物)주의에 온전히 매몰되어 ‘지금 여기’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니 깨어 있어라!’(마태 24,42)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마태 24,44)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기에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시간관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갈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함이 옳지 못할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가 영혼 안

에 있음을 어느 모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선 볼 수 없사오니,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함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고백록 11권 20장) 그렇다면 이 영원한 오늘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묵시 3,20)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감각적인 온갖 유혹과 우리의 영혼을 헛갈리게 하는 이 세상의 그릇된 사조(思潮)와 악령(惡靈)에 대항하는 영적인 투쟁(에페 6,10-20)을 용감히 받아들이고 사는 나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 13,12)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캘리그래피 | 강신성요한

말씀의 이삭

행복의 기준

제가 대만으로 와서 처음 지내기 시작한 곳은 남쪽에 있는 ‘타이난’이라는 도시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오래된 도시로 과거 통치 중심지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약 19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만의 6대 직할시 중 한 도시입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했으니 당연히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타이난 도로에는 좌회전과 유턴 신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원에서 시내 중심을 거쳐 어학원까지 거의 왕복 한 시간 이상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제가 늘 다니던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와 유턴 표지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색 직진 신호 시 어느 곳에서나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불합리한 교통 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쪽이 녹색 신호라면 보통은 반대편 차선도 녹색 신호이고 또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방향의 차들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들과 함께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의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은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은 가벼운 접촉사고 몇 번이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교통 체계를 가지고도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이곳 사람들의 여유 있고 양보할 줄 아는 운전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고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준비하고 있는 차를 보면 나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쉽게 양보할 줄도 압니다.

아마도 이런 운전 습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위험한 교통체계이면서도 사고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체계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안전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치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남에게 받을 때가 줄 때보다 더 행복해야 하지만 때론 받을 때 보다 줄 때 더 행복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말고 그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기준은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실되이 물어봅시다.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 (중화관구)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준비라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준비일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마태 24,4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